

전주시, 대중교통 시책평가 '국토교통부장관상'

친환경 수소 시내버스·마을전기버스 도입·전주~완주 시간선제 노선 개편 등 높은 점수 받아 우수기관 선정

친환경 수소 시내버스와 마을전기버스를 도입하는 등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우수하여 '2023년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전주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2023년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중교통 시책평가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중교통계획 및 시책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16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2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평가에서 시는 2019,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강원 원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C그룹으로 분류돼 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 대중교통 시책 우수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

특히 시는 그동안 수소 시내버스와 마을전기버스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이와 함께 전주·완주 시간선제 노선 개편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주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23년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시민만족도를 높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상택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승강장 냉·온열외자와 방한텐트 설치, 수소 시내버스 적극 도입, 전주시 대중교통 혁신을 이끌

BRT 도입 추진까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우리 전주시민들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시내버스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7년부터 도시철도 운영 여부와 인구 기준으로 A그룹부터~E그룹까지 5개 그룹으로 나눠 대중교통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체납 과태료 강력 징수 나선다

부동산·예금·차량 압류·번호판영치 등 행정제재·현장 징수

전주시는 내년 1월 2일까지를 '2023년 회계마무리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부동산·예금·차량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액은 16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억 원 늘었지만, 여전히

192억 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다. 또, 해마다 이러한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막대한 행정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항목별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78억 원과 책임보험 과태료 68억 원, 검사 지연 과태료 29억 원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적극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 약 1만3000명에 대해 체납 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체납 안내 및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동시에 최근 1년 이내 일시적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SMS)를 활용한 정확한 송달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세입 조기 징수 및 체납 장기화 예방에 힘을 쏟는다.

/김옥기 기자

엄익준 완산구청장, 한파 대비 경로당 안전점검

엄익준 완산구청장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한파를 대비해 5일 완산구 관내 한파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2차 경로당 방문하여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동절기를 맞아 화재 사전예방 및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위험

에 대비해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진행했다.

겨울철 한파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은 192개소로 내년 3월까지 한파 특별 발생시 주중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경로당 시설 점검사항으로는 △보일

러, 화장실 배관, 창호 기밀성 △외부의 오·하수관 상태, 외벽균열, 담장파손, 지붕누수, 지반침하 가능성 확인 △화기 적정 사용 여부 및 화재안전점검,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이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 예정이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내부환경 노후화는 2024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반영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올겨울 어르신들이 난방비 걱정 없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경로당에서 보낼 수 있도록 사전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했다.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은고을중학교 나눔봉사단은 지난 4일 겨울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직접 담근 김장김치 71박스를 인후3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따뜻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은고을중학교 나눔봉사단, 취약계층 위해 기탁

은고을중학교 나눔봉사단(회장 이옥주)은 지난 4일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하여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주말 동안 직접 담근 김장김치 71박스를 인후3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옥주 회장은 "추운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생각하며 최병훈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원과 학생들, 학부모로 구성된 나눔봉사단이 정성을 모아 준비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병훈 은고을중학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과 봉사 정신을 되새기며 점차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근 인후3동장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은고을중학교 나눔봉사단의 따뜻한 사랑 나눔에 감사드리며, 이옥주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의 소중한 마음까지 관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교통약자 전용 택시 사업자 25명 모집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교통약자 전용 택시'를 운행할 개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25명이다. 이용률 증가로 지난해보다 5명을 더 뽑는다. 11일까지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교통약자지원부 사무실을 방문해 지원서를 내면 된다.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주시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연령이 만 67세 미만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또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1년간 교통약자 전용 택시를 운행하게 된다.

이 기간 비활체어 교통약자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전주시설공단이 '교통약자 전용 택시'를 운행할 개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 (사진=전주시설공단 제공)

교통약자 전용 택시는 시각장애인이나 신장 장애인 등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즉 비활체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교통수단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교통약자 특장차량, 비활체어 교통약자는 교통약자 전용 택시로 이용 체계가 이원화돼 있다.

/김옥기 기자

